축산물 안전전문가 육성과 생산자 협조 없으면 축산물 안전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

If Food Safety Researchers for Animal Products and Producers' Collaborations are Not Prepared, Food Safety Problems for the Products will be Endless

이희영, 윤요한 (Heeyoung Lee, Yohan Yoon)

숙명여자대학교 위해분석연구센터
Risk Analysis Research Cente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양계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토론회도 여러 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축산물 안전관련 이슈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때 마다 축산물의 매출은 곤두박질친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대책을 찾지 못하고 노심초사 하고 오히려 문제를 관망하며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혀 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산물 시장 확대를 통한 관련분야의 활성화는 꿈도 못 꿀 일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의 여러 축산물 안전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생산자들의 협조를 통해 축산물 안전전문가들의 연구와 충분한 정기적 예찰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예방 가능했었고 설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선제적 조치로 피해를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 되어 안정적 시장 환경 조성 및 확대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축산물의 판매량이나 가격이 급감 하는 시점은 대부분 축산물 안전문제가 이슈화된 직후이다. 왜 우리는 반복되는 이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 것일까?

첫째, 국내에서 축산물과 관련된 사건 또는 신문기사가 나오면 대부분이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것 들이고 이것은 축산물 판매량 급감과 직결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축산물 안전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축산물 관련 정부부처, 기타 유사기관 심지어 대학의 축산관련학과 어디에도 축산물 안전을 전공한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축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에서도 축산물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전문가는 것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은 축산관련학과에서 축산물 안전 전문가를 양성해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전국에 축산관련 학과에 교수님이 130여 분 계신데 축산물 안전을 전공하고 연구를 통해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살충제 계란사태 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물 안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는 축산물 안전 전문 인력의 부

*Corresponding author: Yohan Yoon
Risk Analysis Research Cente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el: +82-2-2077-7585
Fex: +82-2-710-9479
Email: yyoon@sookmyung.ac.kr

족이 매우 큰 원인일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산물 안전문제에 대해 다른 분야의 유사전공자들의 유추해석에 의존하여 축산물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축산물의 생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진단이나 정책과 대책들이 마련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현실적인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축산관련 학과에 축산물안전 전공을 개설하여 장기적으로 축산물 안전 전문가들을 배출해야 한다.

둘째, 축산물은 축산농가, 도축장/도계·도압장, 가공공장을 거치면서 제품이 생산되게 되는데 축산물은 농산물이나 수산물과 다르게 모든 단계에 위해성이 높은 위험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도 소홀할 수가 없다. 그런데 모든 단계에 문이 꼭꼭 잠겨 있어서 연구를 위한 접근이 너무 어렵다. 그렇다 보니 안전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 하다. 이렇게 각 단계마다 문을 꼭꼭 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장 진단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은 불가능 하고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축산물 안전에 대해 불안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의 네가티브 반응이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제2의 살충제 계란사태 아니 그보다 더한 상황의 발생은 필연적일 것이고 이는 축산업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자들의 협조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앞으로 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안전성문제를 함께 다루어 줄 전문가가 대학을 중심으로 양성되어한다. 또한, 생산자들의 협조를 통해 안전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